

작품 내용

제 목	PDF방의 사용과 씹쓸한 교훈
내 용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정확히는 1학년을 마친 겨울방학이었다.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는 매주 수능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치렀다. 큼지막한 시험지에 인쇄된 다양한 출처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는 총 7번의 시험에서 평균 1등을 기록할 만큼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었다. 그런데 실력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렇게 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학원은 어디에서 구해 올까? 시중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매주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그 의문은 2학년 2학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우연히 풀렸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PDF 공유방, 소위 “피텔방”의 존재를 알려 주었다. “안 쓰면 손해”라는 말과 함께 텔레그램의 특정 방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내가 이름조차 몰랐던 수많은 문제집과 모의고사, 참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순간 예전에 학원에서 풀었던 모의고사들의 출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당시에는 교재 가격이 부담스러웠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구입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니 운이 좋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좋은 정보를 알려 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아이스크림은 좋은 정보를 알려 준 대가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당시의 나를 보여 주는 씹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피텔방은 정말 편리했다. 마침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었기에 필요한 과목의 필요한 부분만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 바로 열어볼 수 있었다. 무거운 문제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었고, 여러 권의 교재를 한 기기에 저장해 두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처럼 보였다.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용했다. 주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조차 점점 무디어졌다. 오히려 돈을 아끼면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기 시작했다.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자료들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집필하고 편집하여 만든 결과물이었다. 수많은 출판사와 저자, 검토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가 의문이 들었다. “학생이라 돈이 없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다른 사람도 다 이용한다”와 같은 이유들은 순간의 편의를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창작자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얻은 것은 “공부할 자료”가 아니라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었는데도 모른다. 끝없이 쏟아지는 자료 속에서 나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필요한 만큼을 깊이 공부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많은 PDF를 모으는 데 만족했고, 그 결과 밀도 있는 학습 습관은 무너져 갔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결국 고3 수능에서는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 피땀방은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 준 공간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장 쉽게 만들어 준 공간이었던 셈이다.

재수를 거쳐 겨우겨우 수시로 붙은 Y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의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PDF 자료를 찾는 문화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심지어 법을 공부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나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피땀방이 공공연하게 언급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누구보다 법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를 “어쩔 수 없는 현실”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 문제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왜곡된 학습 문화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듯하다.

둘이켜 보면 피땀방이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 비싼 교재 가격과 치열한 입시 경쟁,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환경은 누구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실제로 여러 과목의 문제집과 참고서를 모두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필요한 책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변 친구들이 모두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만 안 쓰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역시 그런 이유들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피땀방을 이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이유들은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면 학교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매하고, 중고 서적이거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친구들이 모두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행동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남들도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행동을 권하는 변명으로 이어질 뿐이다.

좋은 공부는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공부는 결코 몇몇의 배움이 될 수 없다.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창작자의 노력에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며, 동시에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나 역시 한때는 편리함만을 바라보고 피땀방을 이용했던 학생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교재를 가능한 한 정식으로 구입하거나 도서관과 합법적인 자료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한다.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지키는 작은 실천은 단지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넘어, 더 건강한 학습 문화와 창작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